

## 회계법인의 합병이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배성호\*

### 〈요 약〉

본 연구는 회계법인의 합병이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감사인 등록제로 인해 회계법인간 합병이 2019년 전·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법인간 합병의 효과를 분석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회계법인간 합병의 사례가 많지 않았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인 2005년에 있었던 안전회계법인과 하나회계법인간 합병, 한영회계법인과 영화회계법인간 합병 2건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합병 전 3년인 2002년, 2003년, 2004년의 안전, 하나, 한영, 영화회계법인의 피감사회사와 합병 후 3년인 2005년, 2006년, 2007년의 합병회계법인인 안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의 피감사회사와의 조세회피의 차이를 분석한다.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측정치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측정치, 포괄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한 유효법인세율, 실제 현금납부법인세액을 근거로 한 현금납부세율을 사용하였다. 이중차분법(DID : Difference-In-Difference)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합병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의 조세회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합병으로 인해 회계법인의 규모가 커지고 감사투입가능 자원이 많아지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커질수록 정보불균형과 대리인 문제를 야기하는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가 감소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회계법인의 합병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의 합병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유의미한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감사인 등록제의 시행으로 인해 중·소형 회계법인 간 합병이 빈번함에 반해 본 연구는 표본의 제약으로 인해 2005년 발생한 대형회계법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주제어〉 회계법인 합병, 조세회피, 감사인등록제

\*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shobae@knu.ac.kr

논문접수일 2020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22일

## I. 서 론

본 연구는 회계법인의 합병이 피감사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부터 감사인등록제의 전격시행으로 인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만 주권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다<sup>1)</sup>.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도의 시행 전부터 중소형 회계법인간 빈번한 합병이 있어왔다. 규제당국의 감사인등록제 시행 이유는 감사품질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러나 회계법인간 합병은 감사품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회계법인의 합병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회계법인 합병의 효과에 대해 검증한 연구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피감사회사의 감사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감사보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계감사시장의 집중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Choi et al. 2017 ; Christensen et al. 2018 ; Ivancevich and Zardkoohi 2000 ; Kevin et al. 2007 ; Sullivan 2000 ; 정태진 외 2019). 그러나 회계법인의 합병이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업의 조세회피는 현금유출을 줄임으로써 기업가치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Hanlon and Heitzman 2010). 그러나 조세회피를 수행하는 주체가 경영자임을 고려한다면 경영자는 성공적인 조세회피를 위해 기업의 정보환경을 불투명하게 할 유인이 있다(Kim et al. 2011). 이러한 상황은 경영자가 자신의 사적편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대리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Chen and Chu 2005).

회계법인이 합병하면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 감사인간 지식의 공유가 더 원활해지고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높아지므로(He et al. 2019) 피감사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진다. 이는 피감사회사의 부정적인 조세회피를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합병으로 인해 증대된 회계법인의 규모는 합병회계법인의 법적 책임을 증가시키며(DeAngelo 1981), 감사품질을 증대시키므로(정태진 외 2019) 정보비대칭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억제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회계법인 합병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실증분석의 대상이라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2005년에 있었던 안전회계법인과 하나회계법인의 합병,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하면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으로서 충분한 인력, 예산,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사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주권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다. 특히 충분한 인력과 관련하여 수도권에 주사무소가 있는 회계법인은 상시 감사가능 등록회계사 수 40명 이상이어야 하고, 지방에 주사무소가 있는 회계법인은 상시 감사가능 등록회계사 수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한영회계법인과 영화회계법인의 합병의 2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sup>2)</sup> 합병 이전 3개년인 2002년, 2003년, 2004년과 합병 이후 3개년인 2005년, 2006년, 2007년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합병 이후 합병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업의 조세회피가 유의하게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회계법인의 합병이 기업의 조세회피를 감소시켜 기업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결과는 회계법인 합병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특히 드문 상황에서 2019년 감사인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촉발된 회계법인 간 합병이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규제당국과 실무계에 의미가 있다. 또한 합병으로 인한 회계법인 간 지식전이 효과의 존재여부를 검증함으로써 합병의 실효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시사점이 있다 판단된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회계법인 합병과 조세회피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제시하고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실증모형 및 구체적인 변수의 측정방법을 제시하며, 제Ⅳ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증을 위해 사용된 표본 및 기술통계를 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Ⅵ장에서는 추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Ⅶ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기술한다.

## Ⅱ.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회계법인의 합병과 조세회피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선행연구를 제시한다.

### 1. 회계법인 합병

회계법인 합병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회계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회계감사 시장의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우선 회계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시장집중도 및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으로 Ivancevich and Zardkoohi(2000)의 연구에서는 1989년 미국에서 발생한 Ernst & Whiney와 Arthur Young이

2) 언급된 안진회계법인, 하나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영화회계법인은 상대적으로 대형 회계법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2019년을 전·후한 기간에 발생하였던 중·소형 회계법인과는 규모에서 다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2005년의 대형합병(megamerger)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회계법인 합병 사례가 많지 않았고, 2019년을 전·후한 시점에 발생한 합병은 본 연구 수행 시점 기준 재무자료의 부족으로 분석에 한계가 있다.

Ernst & Young으로 합병한 것과 Deloitte Haskins & Sells와 Touche Ross가 Deloitte & Touche로 합병한 사례를 근거로 회계법인 합병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합병 이후 합병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감소하였고, 합병회계법인의 감사보수가 감소함을 확인하여 회계법인의 합병이 감사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고 주장하였다. Kevin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1985년부터 2002년 사이 영국에서 발생한 회계법인의 합병을 근거로 회계법인의 합병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계법인 합병은 회계감사 시장의 집중도를 높이지만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회계법인이 자신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회계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감사보수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Sullivan(2002)은 1989년 미국에서 발생한 Ernst & Whiney와 Arthur Young이 Ernst & Young으로 합병한 것과 Deloitte Haskins & Sells와 Touche Ross가 Deloitte & Touche로 합병하여 Big8이 Big6가 된 사건을 근거로 합병이 회계감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합병은 대형 피감사회사에 대한 감사의 한계비용을 감소시켰으나, 대형 피감사회사 이외 다른 형태의 회사에 대해서는 원가절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사시장의 집중도는 높아지지만 감사보수의 변화는 일관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회계법인의 합병이 피감사회사의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Christensen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소형 회계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취득하는 회계법인(acquiring firm)의 피감사회사의 감사품질은 합병 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Christensen et al.(2018)에서는 합병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기존 피감사회사의 감사품질에 대해 주의를 덜 기울이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Choi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1998년 미국의 Price Waterhouse와 Coopers & Lybrand의 회계법인 간 합병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합병 회계법인인 PwC의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He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에서의 회계법인 합병사례를 근거로 합병의 효과성에 대해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전문성을 가진 회계법인이 합병에 참가하여 합병 후 해당 산업에 속한 피감사회사의 감사품을 검증하였는데 분석 결과 감사품질의 향상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의 합병은 감사인간 지식이 전이효과가 있어 긍정적 효과가 있다 주장하였다.

한편, 국내 회계법인의 합병사례를 근거로 분석한 연구로 심호섭과 강창수(200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합병을 1980년대의 합병과 1990년대의 합병으로 구분하여 합병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주도하에 주로 합병이 이루어진 1980년의 합병은 합병 후 감사품질이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합병이 이루어진 1990년대의 합병은 감사품질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주도의 인위적 대형화보다는 자발적인 합병을 통해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정태진 외(2019)의 연구에서는 2005년 안진회계법인과 하나회계법인 간 합병, 한영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 간 합병의 사례를 근거로 합병 후 합병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대해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합병 이전 합병 대상 회사들로부터 감사를 받은 3개년 동안의 감사품질보다 합병 이후 3개년 동안 합병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회사의 감사품질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회계법인의 합병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회계법인 합병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합병의 결과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강민지와 배성호(2019)의 연구에서는 2005년 안진회계법인과 하나회계법인 간 합병, 한영회계법인과 안건회계법인 간 합병의 사례를 근거로 회계법인 간 합병이 감사보고시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합병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시차는 합병을 하지 않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시차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함을 발견하였으며, 합병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시차가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 및 발생액의 질로 측정한 감사품질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규모가 커진 경우 명성효과로 인해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노력을 더 투입하여 감사보고시차가 증대되었으며, 또한 증대된 감사보고시차는 감사품질을 향상시켰다 해석된다. 따라서 국내의 합병 관련 선행연구의 결론은 전반적으로 합병이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고 있다.

## 2. 조세회피

조세회피<sup>3)</sup>는 기업이 세금으로 지출하는 화폐금액을 줄이는 것으로 직관적으로는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조세회피는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대리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정보불균형을 증대시키는 부정적인 것이라 제시된다. Desai and Dharmapala(2006)는 조세회피를 수행하는 경영자는 성공적인 조세회피를 위해 기업의 정보환경에 임의로 개입하여 정보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정보불균형을 악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할 수 있다 주장하였다. Kim et al.(2011)은 기업의 조세회피와 미래 추가폭락 위험간 유의한 양(+)의 상관을 검증함으로써, 경영자가 조세회피를 위해 기업에 부정적인 뉴스(bad news)를 지연공시 또는 공시누락을 하여 정보불균형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Dhaliwal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현금보유량과 조세회피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는데, 기업의 현금보유량은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며, 조세회피를 기업정보의 불균형 정도라 간주하였다. 즉, 경영자가 높은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업 지출에 있어 경영자의 재량이 증가하므로 대리인 문제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해석된다. 실증분석 결과 현금보유량과 조세회피 간 유의한 음(-)의 상관을 발견하여 조세회피가 크면 현금보유량이 감소한다 주장하였다. 즉, 조세회피로 측정된 기업의 정보불균형이 증가할수록 대리인 문제가 심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세회피(corporate tax avoidance)의 개념은 대다수의 선행연구(Hanlon and Heitzman 2010 등)에서 정의한 조세회피 개념에 따라 기업의 합법적인 절세행위와 불법적인 탈세행위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명시적 세금의 감소'라 정의한다.

화되어 기업의 현금보유량이 감소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조세회피는 재무보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데, Frank et al.(2009)는 조세회피가 공격적 상향 이익보고(*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와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있음을 밝혀 조세회피가 재무보고와 직접적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Balakrishnan et al.(2019)은 조세회피와 이익의 질 사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주장하면서 조세회피가 정보불균형을 증대시키므로 이익의 질이 하락한다 해석하였다.

### 3. 연구가설의 설정

회계법인간 합병은 소속 감사인간 지식전이 효과를 유발하여 산업 및 피감사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일 것이라 예상된다(He et al. 2019). 또한 합병으로 인해 감사인의 규모가 증대되어 더 많은 자원을 감사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품질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정태진 외 2019). 소송위험 관점에서 회계법인의 합병효과를 예측하면, 회계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회계법인 규모가 증대되므로 부실감사에 대한 소송위험이 커진다(DeAngelo 1981). 따라서 증대된 소송위험을 낮추기 위해 합병 회계법인은 감사품질을 더욱 높일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경영자에 의해 수행되는 기업의 조세회피는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대리인 비용을 증대시키며, 성공적인 조세회피를 위해 경영자는 기업의 정보환경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업의 정보불균형을 가중시키는 속성이 있다(Desai and Dharmapala 2008 ; Dhaliwal et al. 2011 ; Kim et al. 2011). 또한 조세회피를 수행하면 반드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조세회피가 증가할수록 공격적 상향 이익보고가 증가하거나(Frank et al. 2009), 이익의 질이 감소한다(Balakrishnan et al. 2011).

따라서 합병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인간 지식전이와 증대된 감사자원 및 규모의 증대로 인한 명성위험으로 인해 감사품질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된다. 그 결과 정보불균형이 해소되고 대리인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는 감소할 것이다. 이에 연구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회계법인의 합병은 조세회피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 Ⅲ. 실증모형 및 변수의 측정

### 1. 실증모형

본 연구는 회계법인의 합병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가

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모형을 통해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로 세 가지 조세회피 측정치(TAV)를 두며 주요 관심변수는  $MERGE \times POST$ 이다. 합병회계법인이 감사한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가 그렇지 않은 회계법인(합병 이전 합병 참여 회계법인들, 합병과 관련 없는 회계법인들)이 감사한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와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주요 관심변수는 이중차분법(DID : Difference-In-Difference)을 적용한  $MERGE \times POST$ 로 측정한다. 기타 통제변수는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들로서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포함하였다.

[연구모형]

$$\begin{aligned} TAV_{1-3it} = & \delta_0 + \delta_1 MERGE_{it} + \delta_2 POST_{it} + \delta_3 MERGE \times POST_{it} + \delta_4 SIZE_{it} + \delta_5 R\&D_{it} \\ & + \delta_6 LEV_{it} + \delta_7 GRW_{it} + \delta_8 ROA_{it} + \delta_9 PPE_{it} + \delta_{10} DPAM_{it} + \delta_{11} CSH_{it} \\ & + \delta_{12} PMDA_{it} + Year\_fixed + Industry\_fixed + \epsilon_{it} \end{aligned}$$

여기서  $i$ 는 기업,  $t$ 는 시점을 의미하며,

- $TAV_{1-3}$  = 3 가지 조세회피 측정치 ;
- $MERGE$  = 합병 이후 합병회계법인, 합병 이전 합병에 참여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 ;
- $POST$  = 합병이 일어난 2005년 이후 시점이면 '1', 2004년 이전 시점이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 ;
- $SIZE$  = 자산총액의 자연로그 값 ;
- $R\&D$  =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값 ;
- $LEV$  =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값 ;
- $GRW$  = 매출 증가율로서 (당해연도 매출액 - 직전년도 매출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나눈 값 ;
- $ROA$  =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
- $PPE$  = 유형자산에서 토지와 건설중인자산을 차감한 값을 기말 총자산으로 나눈 값 ;
- $DPAM$  = 감가상각비와 감모상각비의 합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 ;
- $CSH$  = 현금및현금등가물을 기말 총자산으로 나눈 값 ;
- $PMDA$  = Kothari et al.(2005)의 방법으로 측정한 성과 대응 재량적발생액 ;
- $Year\ fixed$  = 연도의 고정효과 통제변수 ;
- $Industry\ fixed$  = 산업의 고정효과 통제변수.

연구모형에서 주요 관심 변수  $MERGE \times POST$ 의 계수 값인  $\delta_3$ 의 부호가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난다면 합병회계법인이 감사한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는 감소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주요 기타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다.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SIZE$ 의 경우 기업의  $SIZE$ 가 클수록 조세회피에 가용한 자원이 많아지므로 조세회피와 양(+)의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의 증대로 인해 절감되는 조세비용(tax-cost)보다 조세회피로 인해 보고이익이 감소하는 비조세비용(non-tax cost)이 클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

와 음(-)의 관련이 있을 수 있다(Chen et al. 2010). 부채비율(LEV)은 부채 사용에 따른 이자비용의 감세효과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제변수에 포함시켰으며, 수익성을 나타내는 GRW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박종국과 홍영은 2009 ; 배성호와 오광욱 2016). 감가상각 가능자산인 PPE가 클수록 기업이 전략적 조세회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회계선택이 다양해지므로 통제변수로 포함시켰으며, 현금성자산 보유량인 CSH는 법인세 납부가 현금으로 이루어지므로 현금보유량이 조세회피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재량적발생액 PMDA는 재무보고행태가 조세회피 측정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McGuire et al. 2012 ; Blaylock et al. 2012).

## 2. 조세회피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기업의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는 유효법인세율(이하 ‘GETR’), 현금납부법인세율(이하 ‘CETR’),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과의 차이인 BTD의 세 가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GETR은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 법인세비용을 당기 세전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으며, CETR은 당기 실제 현금납부법인세액을 당기 세전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 이 두 세율은 측정과 해석이 용이하므로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조세회피 측정치로 많이 사용되었는데(McGuire et al. 2012) 이 값이 클(작을)수록 조세회피가 감소(증가)한다고 해석된다. DD\_BTD는 다음 회귀식의 잔차로 측정되며(Desai and Dharmapala 2006 ; Hanlon and Heitzman 2010), 수치가 증가(감소)하면 조세회피가 증가(감소)한다고 해석된다.

$$BTD_{i,t} = \beta_1 TA_{i,t} + \varepsilon_{i,t} \quad (1)$$

여기서  $i$ 는 기업,  $t$ 는 시점을 의미하며,

BTD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전년도 자산총액으로 규모조정한 측정치이며, 과세소득은 박승식 외(2006)의 방법론에 따름 ;

TA = Hribar and Collins(2002)에 의해 (당기순이익 - 영업현금흐름)을 전년도 자산총액으로 규모조정한 변수 ;

$\varepsilon$  = 회계식의 잔차로서 BTD 조세회피 측정치.

## IV. 표본 및 기술통계

### 1. 표본

본 연구의 표본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유가증권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의 재무

정보는 Kis-Value와 TS-2000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부 표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표본기간 동안 12월말 결산기업으로 비금융업에 속한 기업
- ② 표본기간 중 총자산과 자본총계가 양(+)인 기업
- ③ 세전이익과 법인세비용이 양(+)인 기업
- ④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관련 변수 측정에 결측치가 없는 기업

연도별 표본의 분포는 <표 1>, 산업별 표본의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1> 연도별 표본 분포

| 연도별  | 표본 수  | 비율(%) |
|------|-------|-------|
| 2002 | 250   | 13.04 |
| 2003 | 285   | 14.87 |
| 2004 | 339   | 17.68 |
| 2005 | 339   | 17.68 |
| 2006 | 346   | 18.05 |
| 2007 | 358   | 18.68 |
| 합계   | 1,917 | 100   |

<표 2> 산업별 표본 분포

| 대분류                    | 표본 수  | 비율(%)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17    | 0.89  |
| 광업                     | 6     | 0.31  |
| 제조업                    | 1,266 | 66.04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35    | 1.83  |
| 건설업                    | 124   | 6.47  |
| 도매 및 소매업               | 138   | 7.20  |
| 운수업                    | 71    | 3.70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50    | 2.61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5     | 0.26  |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187   | 9.75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3     | 0.16  |
| 교육서비스업                 | 4     | 0.21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5     | 0.26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6     | 0.31  |
| 합계                     | 1,917 | 100   |

우선 <표 1>에서 최종 표본 1,917개는 2007년 358개로 가장 많았으며, 2002년 250개로 가장 적었으나 전반적으로 연도별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표 2>에서 최종 표본 1,917개 중 1,266개(66.04%)가 제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87개(9.75%)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산업의 분포와 유사함을 나타내고 있다.

## 2. 기술통계

본 연구 실증을 위해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3> 기술통계량

| 변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중위수   | 최대값   |
|--------------|-------|-------|--------|-------|-------|
| BTD          | 0.011 | 0.041 | -0.075 | 0.007 | 0.100 |
| DD_BTD       | 0.013 | 0.040 | -0.086 | 0.006 | 0.178 |
| GETR         | 0.241 | 0.167 | 0.00   | 0.260 | 0.863 |
| CETR         | 0.256 | 0.214 | 0.00   | 0.240 | 1.000 |
| MERGE        | 0.10  | 0.30  | 0      | 0     | 1     |
| POST         | 0.54  | 0.50  | 0      | 1     | 1     |
| MERGE × POST | 0.05  | 0.22  | 0      | 0     | 1     |
| SIZE         | 26.43 | 1.45  | 24.14  | 26.11 | 30.61 |
| R&D          | 0.002 | 0.00  | 0      | 0.000 | 0.04  |
| LEV          | 0.99  | 0.80  | 0.09   | 0.79  | 4.55  |
| GRW          | 0.08  | 0.19  | -0.48  | 0.07  | 0.96  |
| ROA          | 0.05  | 0.04  | -0.09  | 0.05  | 0.19  |
| PPE          | 0.21  | 0.12  | 0.01   | 0.20  | 0.57  |
| DPAM         | 0.01  | 0.01  | 0      | 0.00  | 0.08  |
| CSH          | 0.05  | 0.06  | 0.00   | 0.03  | 0.28  |
| PMDA         | -0.01 | 0.07  | -0.23  | 0     | 0.19  |

여기서,

BTD = (세전이익 - 과세소득) ÷ 전기 총자산으로 계산 한 값 ;

DD\_BTD =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방법으로 측정한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인 조세회피 측정치 ;

GETR =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을 당기 세전이익으로 나눈 값 ;

CETR = 당기 실제 법인세 납부액을 당기 세전이익으로 나눈 값 ;

- MERGE =합병 이후 합병회계법인, 합병 이전 합병에 참여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 ;
- POST =합병이 일어난 2005년 이후 시점이면 '1', 2004년 이전 시점이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 ;
- SIZE =자산총액의 자연로그 값 ;
- R&D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값 ;
- LEV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값 ;
- GRW =매출 증가율로서 (당해연도 매출액-직전년도 매출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나눈 값 ;
- ROA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
- PPE =유형자산에서 토지와 건설중인자산을 차감한 값을 기말 총자산으로 나눈 값 ;
- DPAM =감가상각비와 감모상각비의 합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 ;
- CSH =현금및현금성가물을 기말 총자산으로 나눈 값 ;
- PMDA =Kothari et al.(2005)의 방법으로 측정한 성과 대응 재량적 발생액.

우선 종속변수인 조세회피의 경우 DD\_BTД의 평균값(중위수)은 0.013(0.006)으로 나타났으며, GETR과 CETR의 평균값(중위수)는 각각 0.241(0.260)과 0.256(0.240)으로 나타나 관련 선행 연구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기타 주요 통제변수의 경우 표본기업의 SIZE는 평균값(중위수)가 26.43(26.11)으로 나타났으며, 성장률(GRW)는 평균 8%, 수익률(ROA)은 평균 5%, 상각자산이 유형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1%,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보유비중은 평균 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우선 DD\_BTД와 GETR, CETR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DD\_BTД가 증가하면 조세회피가 증가한다고 해석되고, GETR, CETR이 감소하면 조세회피가 증가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MERGE×POST와 DD\_BTД간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합병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는 감소한다 해석된다. 그러나 MERGE×POST와 유효세율 변수(GETR, CETR) 간에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타 변수들 간 상관관계수는 0.5를 초과하는 변수가 없으므로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회귀분석 결과의 왜곡 가능성은 낮다 판단된다.

〈표 4〉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                 | DD_BTD            | GETR              | CETR              | Merge             | Post              | MERGE<br>× POST   | SIZE              | R&D               | LEV               | GRW              | ROA               | PPE               | DPAM              | CSH               |
|-----------------|-------------------|-------------------|-------------------|-------------------|-------------------|-------------------|-------------------|-------------------|-------------------|------------------|-------------------|-------------------|-------------------|-------------------|
| GETR            | -0.212<br>(0.000) |                   |                   |                   |                   |                   |                   |                   |                   |                  |                   |                   |                   |                   |
| CETR            | -0.373<br>(0.000) | 0.313<br>(0.000)  |                   |                   |                   |                   |                   |                   |                   |                  |                   |                   |                   |                   |
| Merge           | -0.061<br>(0.008) | -0.041<br>(0.080) | 0.012<br>(0.619)  |                   |                   |                   |                   |                   |                   |                  |                   |                   |                   |                   |
| Post            | -0.035<br>(0.130) | -0.020<br>(0.398) | 0.026<br>(0.271)  | -0.013<br>(0.566) |                   |                   |                   |                   |                   |                  |                   |                   |                   |                   |
| MERGE<br>× POST | -0.059<br>(0.011) | -0.017<br>(0.475) | 0.035<br>(0.133)  | 0.703<br>(0.000)  | 0.212<br>(0.000)  |                   |                   |                   |                   |                  |                   |                   |                   |                   |
| SIZE            | 0.087<br>(0.002)  | 0.083<br>(0.000)  | -0.041<br>(0.079) | -0.093<br>(0.000) | 0.049<br>(0.035)  | -0.053<br>(0.024) |                   |                   |                   |                  |                   |                   |                   |                   |
| R&D             | -0.045<br>(0.520) | 0.039<br>(0.093)  | 0.076<br>(0.001)  | -0.017<br>(0.475) | 0.046<br>(0.050)  | -0.010<br>(0.683) | 0.048<br>(0.038)  |                   |                   |                  |                   |                   |                   |                   |
| LEV             | -0.091<br>(0.000) | -0.038<br>(0.105) | -0.093<br>(0.000) | 0.005<br>(0.842)  | -0.052<br>(0.026) | -0.005<br>(0.818) | 0.202<br>(0.000)  | -0.097<br>(0.000) |                   |                  |                   |                   |                   |                   |
| GRW             | 0.160<br>(0.000)  | -0.010<br>(0.662) | -0.113<br>(0.000) | -0.025<br>(0.289) | -0.085<br>(0.000) | 0.020<br>(0.386)  | 0.043<br>(0.063)  | -0.053<br>(0.022) | 0.062<br>(0.007)  |                  |                   |                   |                   |                   |
| ROA             | 0.497<br>(0.000)  | -0.057<br>(0.014) | -0.170<br>(0.000) | -0.011<br>(0.641) | -0.034<br>(0.147) | -0.001<br>(0.982) | 0.101<br>(0.000)  | 0.055<br>(0.018)  | -0.298<br>(0.000) | 0.202<br>(0.000) |                   |                   |                   |                   |
| PPE             | 0.025<br>(0.288)  | -0.028<br>(0.231) | -0.044<br>(0.058) | 0.009<br>(0.694)  | -0.085<br>(0.000) | 0.014<br>(0.552)  | 0.210<br>(0.000)  | -0.018<br>(0.442) | 0.153<br>(0.000)  | 0.012<br>(0.594) | -0.114<br>(0.000) |                   |                   |                   |
| DPAM            | 0.001<br>(0.668)  | 0.050<br>(0.031)  | 0.026<br>(0.269)  | 0.012<br>(0.613)  | 0.076<br>(0.001)  | -0.036<br>(0.124) | 0.163<br>(0.000)  | 0.061<br>(0.009)  | -0.036<br>(0.118) | 0.020<br>(0.387) | 0.101<br>(0.000)  | 0.153<br>(0.000)  |                   |                   |
| CSH             | 0.001<br>(0.670)  | -0.022<br>(0.339) | 0.010<br>(0.664)  | -0.006<br>(0.007) | 0.050<br>(0.033)  | -0.065<br>(0.005) | -0.076<br>(0.001) | 0.037<br>(0.104)  | -0.089<br>(0.000) | 0.002<br>(0.929) | 0.176<br>(0.000)  | -0.212<br>(0.000) | 0.010<br>(0.667)  |                   |
| PMDA            | 0.050<br>(0.032)  | -0.026<br>(0.270) | 0.010<br>(0.776)  | -0.003<br>(0.882) | -0.016<br>(0.499) | 0.022<br>(0.336)  | -0.062<br>(0.008) | -0.027<br>(0.242) | 0.065<br>(0.005)  | 0.047<br>(0.042) | -0.091<br>(0.000) | -0.009<br>(0.692) | -0.050<br>(0.032) | -0.156<br>(0.000) |

구체적인 측정변수에 대한 설명은 &lt;표 3&gt; 참조, 괄호 안은 p-value 값임.

## V. 실증분석 결과

### 1.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식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의 [Panel A], [Panel B], [Panel C]는 각각 종속변수인 조세회피 측정치를 DD\_BTД, GETR, CETR로 하였을 경우의 분석 결과이다.

<표 5> 회계법인의 합병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begin{aligned} TAV_{i,t} = & \delta_0 + \delta_1 MERGE_{i,t} + \delta_2 POST_{i,t} + \delta_3 MERGE \times POST_{i,t} + \delta_4 SIZE_{i,t} + \delta_5 R\&D_{i,t} + \delta_6 LEV_{i,t} \\ & + \delta_7 GRW_{i,t} + \delta_8 ROA_{i,t} + \delta_9 PPE_{i,t} + \delta_{10} DPAM_{i,t} + \delta_{11} CSH_{i,t} + \delta_{12} PMDA_{i,t} \\ & + \sum YD + \sum IND + K_{i,t} \end{aligned}$$

| [Panel A] 종속변수가 DD_BTД인 경우 |          |          |
|----------------------------|----------|----------|
| 변수                         | DD_BTД   |          |
|                            | Coef.    | t-value  |
| Intercept                  | -0.105   | -4.20*** |
| Merge                      | -0.002   | -0.57    |
| Post                       | 0.009    | 3.00**   |
| Merge × Post               | -0.010   | -1.68*   |
| SIZE                       | 0.001    | 1.51     |
| R&D                        | -0.479   | -3.87*** |
| LEV                        | 0.002    | 1.83*    |
| GRW                        | 0.007    | 1.71*    |
| ROA                        | 0.533    | 24.53*** |
| PPE                        | 0.024    | 3.17**   |
| DPAM                       | -0.170   | -2.26**  |
| CSH                        | -0.033   | -2.29**  |
| PMDA                       | 0.041    | 3.43**   |
| ΣYD                        | include  |          |
| ΣIND                       | include  |          |
| F_Value                    | 28.04*** |          |
| Adj. R <sup>2</sup>        | 29.72%   |          |
| N                          | 1,917    |          |

구체적인 측정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3> 참조, \*, \*\*, \*\*\*는 양측검정으로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Panel A]는 종속변수가 DD\_BTД인 경우로서 주요 관심변수인 MERGE × POST의 계수 값인  $\delta_3$ 가 -0.010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대형회계법인의 합병은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특히 합병이 발생한 2005년도 이후를 의미하는 POST 변수의 계수 값이 0.009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2005년 이후에는 기업의 조세회피가 전반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ERGE×POST의 계수 값이 유의한 음(-)의 상관을 나타내었다는 것은 합병회계법인이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유의하게 감소시켰음을 의미한다. Merge와 DD\_BTД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 합병 이후 합병회계법인과 합병 이전 합병에 참여할 회계법인이 감사한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는 다른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의 조세회피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석된다.

통제변수의 분석 결과, 기업규모인 SIZE는 조세회피를 증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부채비율(LEV), 성장성(GRW), 수익성(ROA), 상각자산비중(PPE)이 높을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금보유비중(CSH)이 높을수록 조세회피가 감소하고, 재량적 발생액(PMDA)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의 전반적인 방향과 유의성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분석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Panel B] 종속변수가 GETR인 경우

| 변수                  | GETR    |          |
|---------------------|---------|----------|
|                     | Coef.   | t-value  |
| Intercept           | 0.100   | 0.83     |
| Merge               | -0.029  | -1.54    |
| Post                | -0.037  | -2.63**  |
| Merge×Post          | 0.032   | 1.24     |
| SIZE                | 0.010   | 3.46**   |
| R&D                 | 0.624   | 1.04     |
| LEV                 | -0.183  | -3.29**  |
| GRW                 | 0.008   | -0.36    |
| ROA                 | -0.443  | -4.18*** |
| PPE                 | -0.109  | -2.98**  |
| DPAM                | 0.584   | 1.59     |
| CSH                 | -0.065  | -0.92    |
| PMDA                | -0.074  | -1.27    |
| ΣYD                 | include |          |
| ΣIND                | include |          |
| F Value             | 3.00*** |          |
| Adj. R <sup>2</sup> | 3.03%   |          |
| N                   | 1,917   |          |

구체적인 측정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3> 참조, \*, \*\*, \*\*\*는 양측검정으로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Panel B]는 종속변수가 GETR인 경우로서 주요 관심변수인  $MERGE \times POST$ 의 계수 값인  $\delta_3$ 가 0.032으로 유의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방향성만을 해석한다면 합병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 GETR이 양(+)의 방향을 나타내므로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가 감소된다고 해석된다. 특히 합병이 발생한 2005년도 이후를 의미하는 POST 변수의 계수 값이  $-0.037$ 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2005년 이후에는 기업의 조세회피가 전반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ERGE \times POST$ 의 계수 값이 양(+)의 상관을 나타내었다는 것은 합병회계법인이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감소시켰음을 의미한다. Merge와 GETR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 합병 이후 합병회계법인과 합병 이전 합병에 참여할 회계법인이 감사한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는 다른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의 조세회피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석된다. 기타 통제변수들의 전반적인 방향과 유의성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분석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Panel C] 종속변수가 CETR인 경우

| 변수                  | CETR    |          |
|---------------------|---------|----------|
|                     | Coef.   | t-value  |
| Intercept           | 0.447   | 2.93**   |
| Merge               | -0.024  | -0.99    |
| Post                | -0.021  | -1.16    |
| Merge $\times$ Post | 0.055   | 1.68*    |
| SIZE                | -0.002  | -0.59    |
| R&D                 | 2.385   | 3.16**   |
| LEV                 | -0.004  | -6.25*** |
| GRW                 | -0.078  | -2.80**  |
| ROA                 | -1.132  | -8.54*** |
| PPE                 | -0.057  | -1.23    |
| DPAM                | 1.007   | 2.34**   |
| CSH                 | 0.075   | 0.85     |
| PMDA                | 0.030   | 0.42     |
| $\Sigma YD$         | include |          |
| $\Sigma IND$        | include |          |
| F_Value             | 6.22*** |          |
| Adj. $R^2$          | 7.55%   |          |
| N                   | 1,917   |          |

구체적인 측정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3> 참조, \*, \*\*, \*\*\*는 양측검정으로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Panel C]는 종속변수가 CETR인 경우로서 주요 관심변수인 MERGE×POST의 계수 값인  $\delta_3$ 가 0.055로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합병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 CETR이 양(+)의 방향을 나타내므로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가 유의하게 감소된다고 해석된다. 기타 통제변수들의 전반적인 방향과 유의성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분석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회계법인간 합병으로 인해 합병회계법인의 규모가 커지고 감사투입 가능 자원이 많아지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커질수록 정보불균형과 대리인 문제를 야기하는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감소시킨다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는 결과이다.

## VI. 추가분석

본 연구 분석 결과 회계법인의 합병은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효과는 피감사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이라 예상된다. 회계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감사인은 감사투입 자원의 증가, 감사인 간 지식전이효과, 감사인 규모 증대로 인한 명성위험 증가로 인해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감소시킬 것이다. 만약 피감사회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합병으로 인한 감사인 간 지식전이효과와 소송으로 인한 명성위험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므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표본을 자산총액의 중위수 기준으로 양분하여 추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sup>4)</sup>

<표 6>의 [Panel A]에서는 본 연구 표본에서 자산총액이 중위수 이상이어서 피감사회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대형인 경우 가설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주요 관심변수인 MERGE×POST의 계수 값은 종속변수가 DD\_BTID일 때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 종속변수가 GETR일 때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을 나타내어 회계법인의 합병이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종속변수가 CETR인 경우 유의성은 없지만 MERGE×POST의 계수 값이 0.001로 나타나 그 방향성은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한다 해석된다. <표 6>의 [Panel B]에서는 본 연구 표본에서 자산총액이 중위수 이하이어서 피감사회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형인 경우 가설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주요 관심변수인 MERGE×POST의 계수 값은 종속변수가 DD\_BTID, GETR, CETR인 모든 경우에서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4) 지면관계상 주요 관심변수만 제시하였으며, 기타 통제변수는 생략한다.

〈표 6〉 피감사회사의 규모에 따른 회계법인의 합병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Panel A] 피감사회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대형인 경우

| 변수                  | 종속변수   |         |        |         |        |         |
|---------------------|--------|---------|--------|---------|--------|---------|
|                     | DD_BTĐ |         | GETR   |         | CETR   |         |
|                     | Coef.  | t-value | Coef.  | t-value | Coef.  | t-value |
| Merge               | 0.008  | 1.52    | -0.048 | -1.86*  | -0.001 | -1.68*  |
| Post                | 0.001  | 0.12    | -0.011 | -0.62   | 0.001  | 0.51    |
| Merge×Post          | -0.012 | -1.76*  | 0.055  | 1.64*   | 0.001  | 1.41    |
| Adj. R <sup>2</sup> | 35.16% |         | 1.32%  |         | 5.14%  |         |
| N                   | 958    |         |        |         |        |         |

[Panel B] 피감사회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형인 경우

| 변수                  | 종속변수   |          |        |         |        |         |
|---------------------|--------|----------|--------|---------|--------|---------|
|                     | DD_BTĐ |          | GETR   |         | CETR   |         |
|                     | Coef.  | t-value  | Coef.  | t-value | Coef.  | t-value |
| Merge               | -0.015 | -2.65*** | -0.039 | -1.25   | -0.001 | -0.35   |
| Post                | -0.001 | -1.42    | -0.019 | -0.86   | 0.001  | 0.84    |
| Merge×Post          | -0.004 | -0.56    | 0.025  | 0.56    | 0.001  | 1.38    |
| Adj. R <sup>2</sup> | 31.47% |          | 2.19%  |         | 5.06%  |         |
| N                   | 959    |          |        |         |        |         |

구체적인 추정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3> 참조, \*, \*\*, \*\*\*는 양측검정으로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이러한 추가분석 결과는 회계법인 합병의 효과가 피감사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임을 시사한다. 즉, 피감사회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경우 합병회계법인은 부실감사로 인한 소송위험이 증가하고, 감사인 간 지식전이 효과가 더 클 것이므로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낮추는 효과가 더 큰 것이다.

## VII.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회계법인의 합병이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한 연구이다.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감사인 등록제로 인해 회계법인간 합병이 2019년 전·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법인간 합병의 효과를 분석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회계법인간 합병의 사례가 많이 많았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선

행연구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회계법인의 합병이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합병의 효과에 대한 범위를 넓혀 회계법인간 합병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회계법인간 합병이 빈번하지 않았으므로 비교적 최근인 2005년에 있었던 안진회계법인과 하나회계법인간 합병, 한영회계법인과 영화회계법인간 합병 2건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합병 전 3년인 2002년, 2003년, 2004년의 안진, 하나, 한영, 영화회계법인의 피감사회사와 합병 후 3년인 2005년, 2006년, 2007년의 합병회계법인인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의 피감사회사와의 조세회피의 차이를 분석한다.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해 세가지 측정치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측정치, 포괄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한 유효법인세율, 실제 현금납부법인세액을 근거로 한 현금납부세율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이중차분법(DID : Difference-In-Difference)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합병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의 조세회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합병으로 인해 회계법인의 규모가 커지고 감사투입가능 자원이 많아지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커질수록 정보불균형과 대리인 문제를 야기하는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가 감소됨을 의미한다.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위해 피감사회사의 규모에 따라 회계법인 합병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피감사회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면 합병회계법인의 조세회피 감소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추가분석 결과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집단에서 회계법인의 합병이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합병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피감사회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감사인 간 지식전이효과가 더 크며, 부실감사로 인한 소송위험 가능성에 더 주의를 기울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회계법인의 합병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의 합병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유의미한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감사인 등록제의 시행으로 인해 중·소형 회계법인 간 합병이 빈번함에 반해 본 연구는 표본의 제약으로 인해 2005년 발생한 대형회계법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중·소형 회계법인의 합병을 직접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강민지 · 배성호. 2019. “대형회계법인의 합병이 감사보고시차에 미치는 영향”. 2019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배성호 · 오광욱. 2016. “외부감사인의 노력과 조세절감 성향간의 관련성”.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4호 : 63-91.
- 박종국 · 홍영은. 2009.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세무학연구. 제26권 제1호 : 105-135.
- 박승식 · 장지인 · 정길채 · 배성태. 2006.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4권 제1호 : 213-241.
- 심호석 · 강창수. 2005. “감사인합병과 감사품질”. 회계학연구. 제30권 제1호 : 201-238.
- 정태진 · 최가영 · 최종학. 2019. “대형 회계법인의 합병과 감사품질의 변화”. 회계학연구. 제44권 제1호 : 155-190.
- Balakrishnan, K., J. Blouin. and W. Guay. 2019. Tax aggressiveness and corporate transparency. *The Accounting Review* 94 (1) : 45-69.
- Blaylock, B., T. Shevlin and R. J. Wilson. 2012. Tax avoidance, large positive temporary book-tax differences, and earnings persistence. *The Accounting Review* 87 (1) : 91-120.
- Chen, K. P., and C. Chu. 2005. Internal control vs. external manipulation : A model of corporate income tax evasion. *Rand Journal of Economics* 36 : 151-164.
- Chen, S., X. Chen, Q. Cheng and T. J. Shevlin. 2010. Are family firms more tax aggressive than non-family firm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5 : 41-61.
- Choi, J-H., S. Kim, and K. K. Raman. 2017. Did the 1998 merger of Price Waterhouse and Coopers & Lybrand increase audit quality?.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4 (2) : 1071-1192.
- Christensen, B. E., K. Smith, D. Wang, D. Williams. 2018. The Audit Quality Effects of Small Audit Firm Mergers in the United States. Mays Business School Research Paper No. 2635605. Available at SSRN : <https://ssrn.com/abstract=2635605> or <http://dx.doi.org/10.2139/ssrn.2635605>
- DeAngelo, L. E. 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 (3) : 183-199.
- Desai, M. and Dharmapala, D.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 145-179.
- Desai, M. and Dharmapala, D. 2009.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 : 537-546.
- Dhaliwal, Dan S. and Huang, Shawn X. and Moser, William J. and Pereira, Raynolde. 2011.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he Level and Valuation of Firm Cash Holdings. 2011

-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nnual Meeting—Tax Concurrent Sessions. Available at SSRN : <https://ssrn.com/abstract=1905076> or <http://dx.doi.org/10.2139/ssrn.1905076>
- Frank, M. M., Lynch, I. J., Rego, S. O. 2009. Tax reporting aggressiveness and its relation to 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84 : 467—496.
- Hanlon, M. and Heitzman, S. 2010.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 : 127—178.
- He, Xianjie and Kothari, S.P. and Xiao, Tusheng and Zuo, Luo. 2019. Knowledge Transfer in Audit Firms. Available at SSRN : <https://ssrn.com/abstract=3209590> or <http://dx.doi.org/10.2139/ssrn.3209590>
- Ivancevich, S., and A. Zardkoohi. 2000. An Exploratory Analysis of the 1989 Accounting Firm Megamergers. *Accounting Horizons* 14 (4) : 389—401.
- Kevin P. M and V. P. Ken and F. P. Peter. 2007. The Effect of Large Audit Firm Mergers on Audit Pricing in the UK.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37 (4) : 301—319.
- Kim, J. B., Y. Li., L. Zhang. 2011. Corporate tax avoidance and stock price crash risk : Firm—level analy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00 : 639—662.
- McGuire, S. T., T. C. Omer, and D. Wang. 2012. Tax avoidance : Does tax—specific industry expertise make a difference?. *The Accounting Review* 87 (3) : 975—1003.
- Sullivan, M.W. 2002. The effect of the Big Eight Accounting Firm Mergers on the Market for Audit Services.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45 (2) : 375—399.

## The Effect of Accounting Firm Mergers on Corporate Tax Avoidance of Auditees

Seongho Bae<sup>\*</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how the merger of accounting firms affects the tax avoidance of auditees. Due to the auditor registration system in effect in Korea from 2019, mergers between accounting firms occurred frequently in 2019. In this situation, it is meaningful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merger between accounting firms. In particular, there are not many cases of mergers between accounting firms in Korea, and there are very few previous studies that systematically analyzed them.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cent merger between Anjin Accounting Firm and Hana Accounting Firm, and the merger between Hanyoung Accounting Firm and Younghwa Accounting Firm in 2005. Specifically, the three years before the merger and the three years after the merger are compared for tax avoidance of audited companies of Anjin, Hana, Hanyoung, and Younghwa accounting firm. Desai and Dharmapala's (2006) measures of tax avoidanc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and cash payment tax rate were used to measure tax avoida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tax avoidance of companies that received external audit from the merged accounting firm decreased. In other words, the larger the size of the accounting firm due to the merger, the more resources available for audit investment, and the greater the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less tax avoidance of the auditee, which causes information imbalance and agency problem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meaningful empirical results on how the merger of accounting firms affects tax avoidance in a situation where there are not many previous studies on the merger effect of accounting firms.

〈Key words〉 Accounting firm mergers, corporate tax avoidance, auditor registration

---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hobae@knu.ac.kr, First author